

사육 두수 역대 최다... 한우값 최대 40% 할인 행사

전남 62만3216마리 전년비 4.1% 증가... 소비 줄어 가격은 내림세도, 나주혁신도시 기관 구내식당에 구매 요청...연중 한우 할인판매도

한우 도매가격이 하락하면서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남도와 정부 등이 연중 한우 할인 행사를 펼치며 소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12일 통계청 '가축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남 한우 사육 마릿수는 62만3216마리로, 1년 전보다 4.1%(2만4625마리) 증가했다.

4분기 기준 전남 한우 사육 마릿수는 통계를 낸 지난 2014년(47만1155마리)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전남 한우 사육 마릿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소비가 줄어 한우 가격이 내림세를 보인다.

지난해 12월 기준 한우 600kg 도매가격은 646만 6000원으로, 전년 평균 가격(797만2000원)보다 18.9% 내렸다.

송아지(암·수) 평균 가격도 2021년 410만7000원에서 지난해 12월 254만8000원으로, 1년 사이 38.0% 급락했다.

한우 가격은 낮고 공급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곡물 가격 급등에 따라 사료 가격은 치솟고 있다.

지난해 말 한우 사료 25kg 1포 가격은 15만5000원으로,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인 1월(12만8000원)에 비해 21.1% 올랐다.

전남도는 지난달 초 '한우 산업 안정대책 계획'을 세우고 지역 농·축협과 대형 유통업체에서 연중 '한우고기 할인 판매'를 추진하며 소비를 북돋는다는 계획이다.

전남도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에 입점한 70곳과 전남 한우 광역 브랜드 '녹색한우' '지리산 순한한우', 한우 지역브랜드 10개 등이 할인 대상이다.

할인율은 최소 10%에서 최대 40%이다.

이달 초에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과 함께 연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기관 내 구내 식당 등 단체급식에 전남산 한우고기를 사용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와 농협도 연중 한우 할인 행사를 열어 소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2일 발표한 '한우 수급 안정 대책'의 하나로, 전남 농·축협 하나로마트 136곳

등 전국 980곳에서 '살 맛나는 한우 프로젝트' (가칭)을 진행하며 전국 평균 가격보다 연중 20% 낮은 수준으로 한우를 판매한다.

또 한우 소비가 저조한 2~3월, 6~7월, 10~12월에 추가 할인행사로 '소프라이즈-2023 대한민국 한우 세일' (가칭)을 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대형마트, 온라인몰, 슈퍼마켓, 정육점 등에서도 한우 소매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할인행사 일부 비용은 자조금으로 지원해 전국적으로 한우 소비 확대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 밖에 대형 가공·급식업체 등에서 사용하는 육가공품, 식재료 등에 쓰이는 육류도 한우로 대체한다.

식재료를 한우로 변경하려는 업체에는 차액 일부를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한우 수출도 늘려 물량을 200t

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사료구매자금의 한·육우 농가 배정 비율을 50%에서 60%로 확대하고 수입 조사료(짚)의 경우 할당 관세 물량을 40만t 더 늘리는 한편 한우협회에는 할당 관세 배정물량을 8만t으로 확대한다.

한우 가격 급락으로 경영이 악화한 농가에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해 정책자금을 1%의 저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료구매자금 우선 지원 농가를 기존 '소 150마리 이하 사육농가'에서 '소 100마리 이하 사육 농가'로 변경하고 중소농에게 조사료 할당관세 물량을 우선 배정한다.

또 지역 축협의 직매 비중을 지금의 40% 수준에서 50%까지 확대하고 중소농이 암소를 출하할 때 축협이 직접 매입해 40만~50만원 정도의 농가 도축경비를 절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 브랜드 '상큼애' '오매향' 광주 특별 판매전 성료

올해 매출 270억원을 목표로 내건 전남 광역 브랜드 '상큼애'와 '오매향'이 광주 소비자를 만났다.

농협 전남본부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농협 광주유통센터에서 '전남 농산물 특별 판매전'을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9일 열린 개장식에는 박종탁 전남본부장과 임정모 농협 광주유통센터 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기획전에는 전남 과실 광역 브랜드 '상큼애'와 아열대 작물 '오매향' 대표 농산물이 선보여 졌다.

전남에서 재배한 딸기와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등 주요 과일과 채소가 최대 30% 이상 저렴하게 판매됐다.

행사 기간 겨울 제철을 맞은 딸기는 일본 품종 대신 국산 품종 5종 위주로 내놓았다.

가장 인기가 많은 '설향'과 '킹스베리' 딸기와 담양군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죽향' '메리퀸', 경남도농업기술원 '금실' 등이 소비자를 만났다.

한편 전남을 대표하는 과일 브랜드 '상큼애'와 아열대 작물 브랜드 '오매향'은 취급 품목을 늘리고 연중 출하 체계를 구축하면서 덩치를 키울 작정이다. 전남 광역 브랜드 올해 취급 목표는 270억원으로, 전년(177억원)보다 52.5%(93억원) 늘렸다.



지난 주말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농협 광주유통센터를 찾은 고객들이 전남에서 재배한 딸기를 구매하고 있다. <전남농협 제공>

박 본부장은 "전남의 고품질 농산물은 대한민국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고, 국민의 건강까지 책임지고 있다"며 "전남농협은 농산물 유통혁신을 이

록해 농산물 소비촉진 및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축협, 마루동 종합타운 내일 착공

내년 7월 준공 목표

광주축협농협이 광주시 서구 마루동에 '광주축협 종합타운' (투시도)을 조성한다.

광주축협은 오는 14일 오후 3시 서구 마루동 부지(172-8)에서 '마루동 종합타운' 기공식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축협은 종합타운을 조성하는 사업부지를 지난 2020년 매입한 뒤 이달 시공사를 선정,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하-지상 3층 규모, 4795.9㎡ 부지(1451평)에 연면적 5701.2㎡(1725평) 규모로 조성한다. 이 건물에는 상호금융 점포와 하나로마트, 축산물 작업장, 창고, 회의실 등이 들어선다.

지난 1958년 설립한 광주시축산업협동조합은 10년 뒤인 1968년 배합사료공장을 가동하고, 2000년에는 영암 대불산단으로 공장을 옮겼다.

광주시 동구 학동에 있던 본점이 택지 재개발로 인해 2013년 광산구 신촌동으로 이전했다.

이달 기준 광주축협에는 548명의 조합원과 임



직원 183명이 활동하고 있다.

신용·경제부문 사업 규모는 지난해 말 1조 8025억원으로, 1년 전보다 7.0%(1185억원) 증가했다.

김호상 조합장은 "광주축협농협의 발전을 위해 조합원과 고객이 보내준 성원 덕분에 오랜 숙원사업인 마루동 종합타운을 착공하게 됐다"며 "우리 농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걸음에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어촌공사, 청년농 육성·지원 사업 추진

농지 매입 후 최장 30년 임대 지원

한국농어촌공사가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등을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공사는 미래 농촌의 주역인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 농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올해 선(先)임대-후(後)매도사업 등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선임대-후매도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뒤 이 농업인에게 최장 30년간 장기임대한 뒤 소유권 이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당 1ha(1만㎡)까지며 사업비는 81억6000만원을 편성했다.

공공 임대용 비축농지에 스마트팜(연동형 비닐 온실)을 설치한 후 청년 농업인이 초기에 큰 투자 비용 없이 운영하도록 10년간 장기 임대하는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도 시행한다.

지원 규모는 6ha(1인당 0.5ha 이하)며 모두 45억원이 투입된다.

연동형 비닐하우스에는 작물 성장을 돕는 각종 환경 제어시설과 양액제배 시설, 관수시설 등이 설치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 국제농기자재 박람회 열린다

16일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 무인 방제기·전기동력차 등

소상공인희망 협동조합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간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3 광주 국제농기자재 박람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박람회에서는 최신 농업 흐름에 맞춘 농기계와 농자재 등을 만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트랙터, 이

양기, 콤팩트, 분무기, 무인 방제기, 전기 동력차, 유기농 비료, 우수 종자, 특수 장비 등이 선보여진다.

귀농·귀촌 관련 새로운 사업안과 최신 정보도 접할 수 있다. 박람회장 곳곳에서는 '도시 농업·친환경 농업 홍보관'과 '우수 중소기업 제품관', '우수 농산물품관' 등이 마련됐다.

사전 참가 등록은 홈페이지(agrifair.kr)에서 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과 함께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자연과 만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

수목장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수목장의 장점

- 반영구적 사용가능
- 관리의 간소화
- 낮은 관리비
- 자연과의 동화
- 후손들의 부담 감소

※ 윤달 이장 상담 가능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메모리얼 가든

24시간 연중무휴

☎ 062-464-3466